

2022년 12월 1일

제 29호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공석구 (한밭대 명예교수)

※ 이 글은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는 중국의 주장과 배경을 살펴보고, 그 주장의 오류를 지적한다.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공석구(한밭대 명예교수)

1. 문제 제기

장성은 기본적으로 중원 민족과 그 바깥의 이민족 세계를 구분하는 구조물의 성격을 지닌다. 중국 역대왕조는 흉노족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이민족 또는 대립 갈등하고 있는 타 정치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장애물로서 장성을 축조해왔다. 전국시대부터 명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곳저곳에 다양한 형태의 장성이 축조되어 그 내용이 변화해왔다.

장성의 길이는 분명치 않다. 여러 왕조에서 축조한 것이다 보니 정확한 길이를 일일이 추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역대 장성을 대표하는 것은 명나라 장성이다. 이는 서쪽의 간쑤성 가옥관(嘉峪關)에서 동쪽의 허베이성 산해관(山海關)까지 6,350k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05-2014년 국가 차원에서 ‘장성보호공정’(長城保護工程)을 시행하고 다양한 유적의 발굴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2012년 6월 5일, 신화사와 광명일보 등 중국을 대표하는 언론들은 “국가문물국에서 중국 역대 장성의 길이를 21,196.18km라고 발표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종전보다 2배가 넘는 길이에 해당한다. 허베이성 산해관까지로 간주되었던 명나라 장성의 동단을, 압록강 변에 있는 단둥시(丹東市)의 후산(虎山)까지로 확장했다. 한국학계와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만리장성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역대 사서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다. 역사기록에 나타난 일반적인 표현은 장성(長城)이다.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장성을 구별하기 위해 축조한 왕조의 이름을 붙여서 진(秦) 장성, 한(漢) 장성, 명(明) 장성 등으로 부른다. 우리에게 익숙한 만리장성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수교 과정 이후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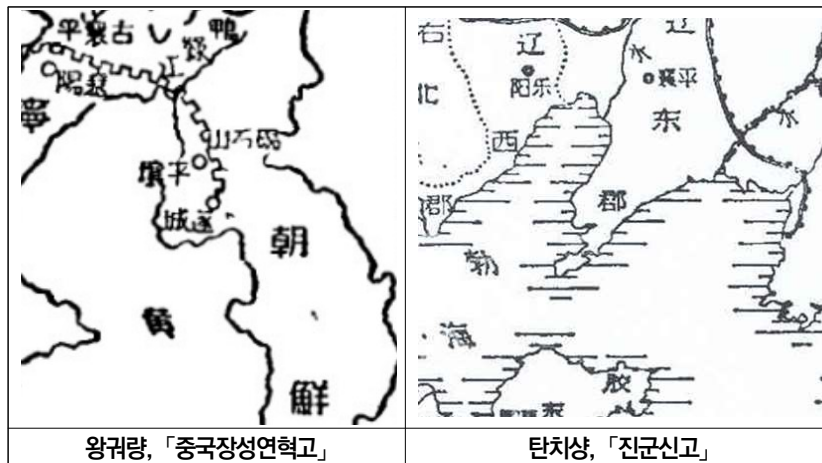
중국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제시된 역대 장성 지도를 보면 전국시대의 연나라 장성, 진 나라 장성, 한나라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와 있다. 역대 장성의 흔적이 한반도 서북부지역에까지 미쳤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일까?

2.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축조됐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

중국의 역대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축조됐다고 보는 주장은 어느 일본인에서 비롯되었다. 이나바 이와기치(稻葉巖吉)는 1910년에 발표한 「진장성동단 및 왕검성고(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라는 글에서,¹⁾ 진나라 장성이 낙랑군의 속현인 수성현까지 축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가지 사료에 근거한다. “낙랑군 수성현은 진나라 시기의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와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으며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라는 기록이다. 이나바는 수성현의 위치를 현 황해북도 수안군 지역으로 비정했다.

중국학자의 유사한 연구도 있다. 왕귀량(王國良)은 1928년에 발표한 「중국장성 연혁고(中國長城沿革攷)」에서 진나라 장성이 평양 남쪽의 수성까지 연결된다고 했다.²⁾



〈그림 1〉 중국 학자가 주장하는 진나라 영역도

〈그림 1〉의 왼쪽은 왕귀량이 제시한 진나라 장성의 동쪽 끝단이다. 실선의 장성 라인에 ‘갈석산(碣石山)’, ‘평양(平壤)’, ‘수성(遂城)’ 등 세 개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장성 라인이 평양 우측을 지나 동남쪽의 ‘수성’에까지 이르고 있다. 수성은 나중에 낙랑군 속현 중의 하나인 수성현을 말한다. 진나라 장성의 동쪽 시작 지점을 수성현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귀량은 구체적으로 수성현 갈석산이라고 지목하였다. 그는 갈석산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조선의 평양 남쪽에 있다고 해석했다. “『통전』에 갈석산은 한(漢)의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위치한다.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라고 한 기록에서 근거를 찾았다. 하지만 왕귀량은 정작 갈석산의 위치를 〈그림 1〉에서 보듯이 평양 남쪽이 아니라 평양의 동북쪽 지역에 표기했다. 왕귀량의 부정확한 역사 지리 인식에서 나온 표현의 오류인 것이다. 여하튼, 그림으로 제시해 진 장성의 위치를 시각화한 것은 왕귀량에서 시작되었다.

왕귀량의 주장은 탄치상(譚其驥)으로 이어졌다. 그는 1948년 발표한 「진군신고(秦郡新考)」라는 논문에서 진나라 요동군의 경계를 왕귀량과 유사하게 제시했다. 이것은 1955년 구제강(顧頡剛)이 편찬한 『중국역사지도집-고대사부분-(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과 1979년 귀모뤄(郭沫若)가 편찬한 『중국사고지도집(中國史稿地圖集)』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1982년 탄치상이 주도해 편찬한 『중국역사지도집』이 중국에서 공식 발간되면서 중국에서는 장성의 동단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미친 것으로 고착되었다. 차후 중국의 모든 역사지리 연구는 이 책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1)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 『史學雜誌』 21編-2號.

2) 王國良, 1928,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30쪽.

3. 중국 측의 주장이 오류인 이유

역대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들어왔다는 중국의 주장은 타당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첫째, 문헌 사료를 잘못 해석했다. 근거 사료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 1) 『사기색은』에 인용된 “태강지리지라는 책에 이르기를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는데 장성이 시작 되는 곳이다”
- 2) 『진서』 지리지 낙랑군 수성현에 “진나라가 축조한 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 3) 『통전』에 “갈석산은 한(漢)의 낙랑군 수성현 지역에 위치한다. 장성이 이 산에서 시작된다.

사료 1)의 『태강지리지』라는 책을 보면 '수성현의 갈석산에 존재한다는 진나라 장성' 관련 내용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을 분석해보면,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필사한 새로운 기록이 계속 추가된 현상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내용이 진 무제 태강 연간(280~289년)에 해당하는 기록인지도 분명치 않다. 만약 그렇다면 『태강지리지』가 말하는 갈석산은 313년 요서 지역으로 옮겨간 이후, 즉 요서지역의 낙랑군 수성현의 갈석산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료 2)는 당나라 시기 『진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다. 당나라 시기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 3)에 나타난 갈석산은 기록 1)과 마찬가지로 313년 낙랑군이 요서 지역으로 옮겨간 후 해당 지역에 존재한 갈석산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통전』은 원래 없었던 '한낙랑군'이라는 문구를 첨가하여 '한나라 시기의 낙랑군'이라고 시기를 특정하였다. 이 때문에 마치 한나라 시기의 장성이 평양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낳게 했고 이후의 역사 지리서 편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위의 1), 2), 3) 사료는 한반도 평양지역의 낙랑군과는 관련이 없다. 결국 위의 1), 2), 3) 사료를 근거로 하여 평양지역에 있던 낙랑군 수성현을 등장시켜 진나라 장성 문제를 고찰한 것은 사료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진 장성 문제를 거론한 역사서인 『진서』, 『사기색은』, 『통전』은 모두 당나라 시기에 편찬되었다. 이 때는 당나라가 화이론적 역사관을 확립하고 주변국을 당 중심의 질서 체계라는 틀에서 이해하려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점 등이 책 편찬과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고고학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 『중국역사지도집』은 한반도 관련 장성의 실체를 학문적으로 분명치 않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현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몇 년 전 필자는 베이징의 중국국가박물관을 관람했던 적이 있다. 진나라 시기 영역을 표시한 전시패널에는 진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평양 서쪽 지역까지 장성을 실선으로 그려서 제시한 바이두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림 2〉 베이징 국가박물관 전시패널(왼쪽, 2015년 1월 17일 필자 촬영)과 점선으로 표시된 지도(탄치상, 1982, 『중국역사지도집』) :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에는 장성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실선이든 점선이든 모두 오류인 것은 분명하다. 장성 라인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그려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중국역사지도집』이 표현한 장성 라인은 왕귀량이가 제시한 라인과 대체로 유사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고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장성 라인이 한반도 서북부는 차치하더라도 중국의 요령성 요하 동쪽에서조차 발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장성 라인을 표현하기 위한 고고학적 근거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잘못된 사료 해석을 근거로 머릿속으로 그려낸, 상상력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1984년 북한은 황해도 박천군 대령강 상류에 댐 건설 공사를 하면서 장성 유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1987년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이 이른바 대령강 장성이다. 북한은 고구려와 고려시대의 기와가 출토된 것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가 대령강 장성을 처음으로 축성하였고,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성벽을 증축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학계는 만리장성의 길이를 연장하는 데 바로 이 대령강 장성을 이용했다. 대령강 장성을 진나라 장성이 한반도 평양 부근까지 연결된 고고학 증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림으로만 상상해왔던 연 장성, 한 장성의 흔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령강 장성을 중국의 연나라 장성, 진나라 장성, 한나라 장성의 흔적이라고 고착시켰다. 중국의 여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장성지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오류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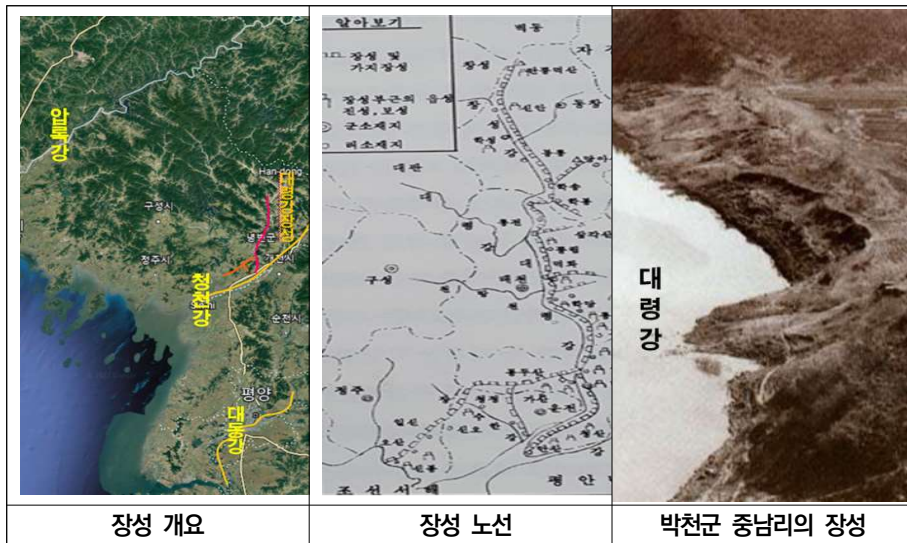
4. 고(구)려 대령강 장성을 만리장성으로 왜곡

만리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연장되어 있었다는 중국 측의 주장이 오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령강 장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북한학계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령강 장성은 아래 〈그림 3〉와 같이 기본 장성(적색 라인)과 거기에 덧붙여 서남쪽으로 뻗은 곁가지 성(주황색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천군 중남면에서 시작하여 태천군 신안리까지 남북방향으로 164km에 달하는 기본장성이 있다. 그리고 후일에 장성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기본 장성에 덧붙여 박천군 삼봉면에서 신봉리 바닷가까지 서남쪽으로 뻗어나간 곁가지 성이 있으며, 이 중간에 운전군 가산리에서

대령강 하구까지 남북방향으로 연결된 또 다른 겹가지 성이 있다. 이들 겹가지 성의 길이는 74km가량이다. 대령강 장성의 전체적인 길이는 240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성 주변에서 고구려 기와와 토기 및 고려시대의 기와조각 및 송나라의 화폐가 발견되기도 했다.

북한학계는 처음에는 대령강장성을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가 최근에는 출토된 토기와 축성법이 고구려와 관련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고구려시대에 축성되어 고려시대까지 활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처음으로 축성된 시기가 고구려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고구려시대든 고려시대든 중국의 만리장성과는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림 3〉 대령강 장성의 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학계는 객관적인 고고학 자료를 외면하고 곳곳하게 '연진한장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학계의 주장은 관방유적 축조와 관련한 기초상식에도 어긋난다. 대령강 장성의 중심을 이루는 기본장성은 대령강을 동쪽으로 건너 강변을 따라서 길게 축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성을 축조할 때는 성벽 외부에 물이 흐르는 해자를 만들어 방어력을 한층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 의미는 강의 동쪽에 있는 정치세력이 강가에다가 성을 길게 축조하여 강의 서쪽에서부터 강을 건너 공격해오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수백km에 달하는 대령강 장성은 서쪽, 서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것이다. 따라서 대령강 장성을 축조한 주체는 중국의 역대왕조가 될 수 없다.

5.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역사연구를 위하여

어떤 사실을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타공인 일반화된 자료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도에 제시할 정도로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지도에 표시할 수 있다. 그만큼 지도는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중국학계에서조차도 한반도 북부 및 길림성 지역에서 연·진·한 시대의 장성 라인에 대한 고고학

적인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리장성의 동쪽을 한반도 서북부까지 이어서 그리는 왜곡을 지속하고 있다.

영국의 조지 오웰(George Orwell)은 『1984』라는 소설에서 역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라고. 중국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왜곡해서 지배한 과거를 가지고는 결코 미래를 지배할 수 없다. 왜곡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녕과 공존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굳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공존의 길이 있다. 이 길을 장성을 통해 모색하길 바란다. 역대 중국의 '장성'은 이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미래의 '장성'은 이웃 국가들과 평화로운 공존의 표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역사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겠는가? 역사를 연구하는 목적은 서로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달성된다. 그럼으로써 평화와 공존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중수교 30주년인 올해의 마지막 달에 거는 희망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문헌>

국문

- 공석구, 2014, 「中國歷史地圖集의 戰國時期 燕長城 考察」『백산학보』 99.
- 공석구, 2015, 「中國歷史地圖集의 평양지역까지 연결된 秦長城에 대한 검토」『先史와古代』43.
- 공석구, 2016, 「秦長城 동단인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 문제」『한국고대사연구』 81.
- 공석구, 2017, 「청천강 유역까지 연결된 漢長城 東端 문제 고찰 - 『中國歷史地圖集』의 사례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65.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7, 「대령강 장성 조사보고」『조선고고연구』 1987-2.
- 손영종, 1987, 「대령강반의 옛 장성에 대하여」『역사과학』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이병도, 1976, 「낙랑군고」『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전종한·이명희, 2017, 「중국의 역사지도 편찬에 관한 기초연구」『동북아역사논총』 56.
- 최승택, 2003, 「대령강반의 장성 방위시설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1, 사회과학출판사.
- 한인호, 1992, 「대령강 장성의 축조 경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2-1.

중문

- 郭沫若主編, 1979, 『中國史稿地圖集(上)』, 中國地圖出版社.
- 譚其驥, 1948, 「秦郡新考」『浙江學報』 第2卷 第1期.
- 譚其驥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 地圖出版社.
- 譚其驥主編, 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匯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
- 王國良, 1928, 『中國長城沿革攷』, 商務印書館, 30쪽.
- 編者 顧頡剛·章巽 校者 譚其驥, 1955, 『中國歷史地圖集-古代史部分-』, 地圖出版社.

일문

- 稻葉岩吉, 1910, 「秦長城東端及王險城考」『史學雜誌』21編-2號.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